



# [장애인식개선교육] 농아인의 날 안내

전주북초등학교  
제 2025-78호  
2025.6.2.

• 주소 :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0 • 교무실 241-5949 FAX 241-5950

## [장애인식개선교육] 농아인의 날 안내

6월 3일은 ‘농아인의 날’입니다. 농아(聾啞) 또는 농아인(聾啞人)은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말로, 수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. 청각장애에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청각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가 있는데, 이 중 농아인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수어, 구화, 필담을 대화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.

### 왜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인가요?

– 한국농아인협회(당시 명칭 ‘조선농아협회’)가 설립된 1946년 6월의 ‘6’과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‘3’을 결합하여 6월 3일을 농아인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.



한국의 농아인 인구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됩니다. 농아인들은 청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수어는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. 농아인들은 수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농아인(청각장애인)이 사회에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농아인(청각장애인)의 권익을 증진하며, 농아인(청각장애인)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, 농아인(청각장애인)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.

2025년 6월 2일  
전 주 북 초 등 학 교 장



##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방식

### • 수어 •



이미지 출처: 국립국어원-수어 소개

종인들이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로,  
손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 
고유 언어를 말합니다.  
표정, 몸짓과 함께 하는 수어는  
활기차고 매력적인 언어입니다.  
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 
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

### • 구화 •



구화는 상대방의 입술의 움직임과  
얼굴 표정을 보며 음성 언어를 이해하고  
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.  
최근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 
상대방의 입술 모양, 표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 
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.

### • 필담 •



필담은 문자언어로 주고 받는 대화 방식으로,  
글로 써서 묻고 대답함을 말합니다.  
수어나 구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,  
글씨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.

## 청각장애인을 만나면?

### 1 대화를 시작할 땐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어깨를 톡톡!

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대화를 시작할 땐,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청각장애인이 놀라지  
않도록 손을 흔들어 보여주거나 가볍게 어깨를 톡톡 쳐서 시선을 끌어주세요!

### 2 눈을 마주보며 의사소통 해요!

청각장애인이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파악한 후,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마주보며  
말합니다. 구화를 할 경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!

### 3 설명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손/몸짓, 필담, 도구를 활용해요!

청각장애인이 길을 묻거나 어떠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, 당황하지 않고  
손짓이나 몸짓을 활용하여 알려주거나 필담을 통해 글씨, 그림을 작성해서 알려주세요.

출처: 발달복지재단 네이머 블로그

달 라 서 아 립 다 운 우 리

통합교육 연구학교 전주북초등학교